



안갯속 북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시기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연평도 앞바다에 해군 고속정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北 광명성 2호 발사, 6자회담에 악영향”

정부 당국자 “실제 발사 여부 등 모든 대책 강구중”

북한이 24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위성을 실제 발사한다면 6자회담을 비롯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제 발사할지 안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 제1718호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공위성 발사도 이런 행위에 포함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발사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실제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안보리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며 “이 판단에 따라 유엔의 추가적인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보 소식통은 “연료 주입 등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제 발사는 시기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국 등 관련국들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만큼 설발리 발사에 나서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미국 등 관련국들의 반응과 연동해 발사 시기를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을 향해 협상에 나서도록 최종적으로 재촉하는 측면과 이미 발사 방침을 확정해 놓고 파장 완화를 위해 통보하는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미외교에서 강경 정책을 펴서 재미를 본 과거 관습을 따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달 8일 대의원 선거 전후 발사 가능성

■北 미사일 발사 공식화...언제 쏠까

대내결속 강화·대외 메시지 극대화 노릴 듯

북한이 24일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 답회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말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말 그대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우주이용권’을 누리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지만, 위성과 핵탄두의 운반 수단이 유사한 원리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주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1998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면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했지만 정보당국은 이를 연막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해 왔다.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천명할 만큼 이제 관심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까나 말까나

가 아니라 언제 발사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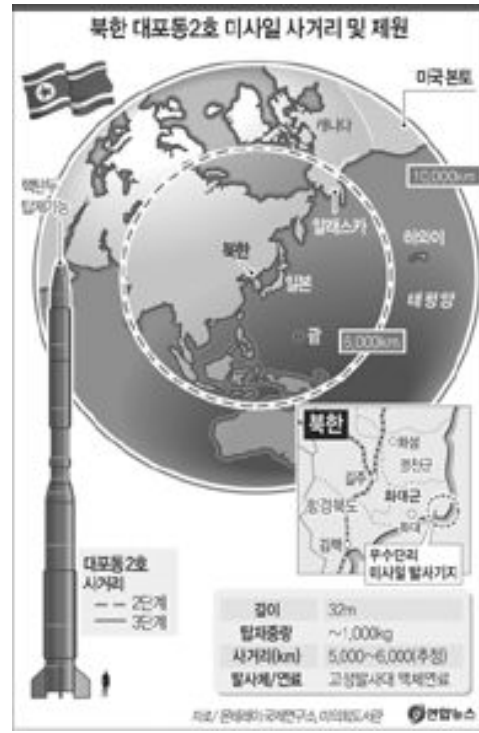
특히 미 국무부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경고 직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언급은 ‘허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 세워져 있는 발사대에 아직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은 등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사장으로 위장된 설비와 장비들이 속속 이동하고 있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의 모습이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발사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대포동 2호에 대한 조립을 완료하고 수직 발사대에 세운 뒤 탄두(北은 광명성 2호로 주장)를 장착하고 액체연료를 주입하는데 2~3주 가량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단계인 연료주입에는 5~7일이 소요된다. 주입한 연료를 다시 빼내는 것은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료 주입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사실상 발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날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모든 기초 준비는 완료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3월 초·중순이 되면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내 결속을 다지면서 대외적인 메시지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계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월8일)와 그로부터 한달 뒤의 첫 전체회의를 즈음해 발사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후계설’ 北 전역 확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의 후계자 낙점 소식이 북한 사회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의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24일 북한 내부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 노동당의 도·시·군 당위원회 부장 이상 간부들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지방 당 부장이 상들이 아는 정도면 전민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현재 주민들은 이 내용이 유언비어라던 김정일의 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의 탄압이 상당 정도로 강화될 것인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

실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지난달 8일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3남 후계 ‘교시’를 받고 각 도당에 하달하면서 3남 이름(김정운)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김 대장’으로만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지는 김정운의 후계자 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북한 군대 내에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운은 생모인 고영희씨 생전에 ‘셋별장군’으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2위 북한”

갤럽 선호도 조사...1위 이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인들은 북한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우호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남녀 1천2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19개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란을 가장 싫어하고 그 뒤를 이어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란에 대해

미국인 가운데 80%가 ‘비우호적’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북한에 대해선 ‘우호적’ 15%, ‘비우호적’ 77%였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경우 ‘우호적’ 15%, ‘비우호적’ 73% 등이었다.

이란과 북한은 작년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1,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수석합격

수강료

특정학원

의중 100% 9문제풀이반

개강 3.2

한빛 고시학원

www.hanbit.com

스피치 리더십

교육내용

| | | |
|--|--|---|
| <p>1. 스피치란 무엇인가</p> <p>2. 스피치의 중요성</p> <p>3. 스피치의 구성요소</p> <p>4. 스피치의 종류</p> <p>5. 스피치의 준비과정</p> <p>6. 스피치의 발표방법</p> <p>7. 스피치의 실용예문</p> | <p>8. 스피치의 실용예문</p> <p>9.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0.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1.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2. 스피치의 실용예문</p> | <p>13.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4.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5.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6.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7. 스피치의 실용예문</p> <p>18. 스피치의 실용예문</p> |
|--|--|---|

문의: 02-266-1221, 02-941-7000

제주도 여행권 89,000원

이동차량 무료가법서비스

| | | |
|--------------------------------------|--------------------------------------|--------------------------------------|
| <p>제주도 여행권</p> <p>89,000원</p> | <p>제주도 여행권</p> <p>89,000원</p> | <p>제주도 여행권</p> <p>89,000원</p> |
|--------------------------------------|--------------------------------------|--------------------------------------|

문의: 084-744-1109